

任允摯堂論

박현숙

국문초록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불평등은 크게 여성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공적 영역에의 진입을 거부한 것에서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없었고, 사회적 인간으로 남성과 더불어 살아가 수 없었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교화의 대상이었고, 남성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였을 뿐이다. 유순하고 순종적인 여성상이 규범적 여성상으로 정립되어 확대 재생산되던 시대에 윤지당은 자신이 평생 탐구했던 성리학적 논리를 빌려 여성도 남성과 다른 천품을 타고난 존재임을 선언하였다. 윤지당은 성리학의 논리를 가지고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정치적 영역까지 관심사를 넓혔다. 남성을 돕고 보완하는 여성으로 살아가 것을 강요하던 시대에 여성도 남성처럼 학문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여성이 자신의 삶의 주체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후세에까지 전승하여 주체적 삶에 대한 여성의 자각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핵심어: 임윤지당, 여성, 성인, 교육, 정치, 성리학, 저술.

1. 서론

여성 주체성의 측면에서 볼 때 가부장제적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사회화해 온데 있다." 열등한 존재로 사회화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지도 받으며, 남성을 돕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때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이러한 여성상을 재생산하는 이념적 기저에는 유교가 있었다. 그렇게 때문에 유교는 동양사회에서 가부장적 권력을 재생산해낸 주범으로 몰려 현대의 페미니스트들과는 거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유교적 사회는 '삼종지'를 내세워 여성을 일생동안 남성에게 묶어 두었다. "부인에게는 삼종지의가 있고, 오로지 할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이미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 '오로지 할 도리'가 없는 여성을 강조하는 이 구절에 의하면 여성은 일생 동안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자신의 일은 아버지, 남편, 아들로 지칭되는 남성이 결정하며, 여성은 이 결정에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일 뿐이다. 여성은 부덕이라는 이름으로 삼종지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양식을 내면화시키고 준수하기를 강요받았다. 만약 이에서 벗어나게 되면 작게는 윤리적 비난을, 심하게는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실제로 우리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의 행동반경은 '뜨락 안'으로 제한되었다. 유교적 이념에 따르면, 여성의 행동영역은 '內가 正位'이기 때문이다. "가인은 여자가 안에서 위치를 바로 하고, 남자가 밖에서 위치를 바르게 함이니, 남녀가 바른 것이 천하의 大義이다." "여자는 안의 일을 남자는 바깥일을 보

1) 벨혹스 지음, 박정애 역, 『행복한 페미니즘』(백년글사랑, 2002), p.45

2) 한국유교학회 편, 『유교와 페미니즘』(철학과 현실사, 2001).

3) 『十三經注』4, 「儀禮」권제30, 예문인서관인행.

婦人有三從之義無專用之道 故未嫁從父 既嫁從夫 夫死從子.

4) 『주역』부언해3, 권 13 家人卦(학민문화사, 1990), p.87.

家人女正位乎內 男正位乎外 男女正 天地之大義也.

는 것이 천하의 大義이고 이를 벗어나는 것은 천하의 대의를 어지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용납될 수가 없다는 인식에서 여성차별은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가치기준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여성의 능력 有無나 사회적 功過를 떠나서 사회활동, 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성의 활동영역은 자연히 가정 안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유교적 사회의 규범적 여성은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성리학적 이념이 더욱 완고하게 경직화 현상을 보인 조선후기 이후 여성이 주체성을 자각하고 사회적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는 과정이란 곧 여성의 '탈유교화'의 과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오늘날 유교계와 페미니스트들의 불화로 표출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성리학적 이념이 경직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성역압이 최고조에 다다랐다는 조선후기에 “내가 비록 부녀자이지만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가 다름이 없다.”⁵⁾고 선언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조선시대에는 드문 여성 성리학자라 할 수 있는 임윤지당(1721-1793)이다.

윤지당은 노은 임적과 윤부의 따님이었던 파평윤씨 사이에서 출생하여 임성주와 임정주 등 남자형제들과 같이 학문을 논하면서 자라났다. 신광유에게 출가하였으나 일찍 남편을 여의고, 슬하에 자식이 없어 양자를 들여 양육하였으나 그마저 윤지당보다 앞서 세상을 떠났다. 조선시대 여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다지 평탄하다고 할 수 없는 일생을 살았다. 윤지당의 일생은 여러모로 조선시대가 규정한 '규범적 여성상'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선시대 바람직한 여성으로 평가받으며 가문 구성원의 절대적 신임 속에 일생을 마쳤다. 그녀의 사후 친정동생 임정주와 시동생 신광유는 윤지당이 생전에 지은 글을 모아 『윤지당 유고』를 간행하고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다.⁶⁾

5) 이영춘, 『임윤지당』, <극기복례위인실>(혜안, 1998), p.205

噫 我雖婦人 而所受之性 則初無男女之殊

6) 윗 글, p.284

今日印行 抑亦非天意也歟

조선시대에 윤지당이라는 여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예외적 사건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윤지당의 특이성은 그녀가 성리학자로서 조선시대 가해지던 여성 차별이 성현의 뜻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이를 넘어서고자 시도하였다는 점과 그것이 타인들에게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공교육기관에서 제도적 보호를 받으며 학자이자 문인으로 성장하였던 조선 시대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철저히 교육에서 소외되었고 여성의 학문적 재능은 부정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윤지당이 자신의 학문적 능력을 발휘하고 가문 구성원의 존경을 받으며 일생을 마쳤다는 점은 매우 예외적이라 할 만하다.

전통사회에서 한자는 문자이상의 상징성을 띠고 있다. 한자는 공적담론의 도구였고, 남성들의 문자로 간주되었다. 여성이 가장 안에 갇혀 일생을 지내며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철저히 통제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었던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한자로 저술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부심이자 금기에의 도전으로 여기에는 엄격한 자기 검열이 요구되었다. 윤지당은 이 같은 시대적 관습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학문과 저술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굳이 숨기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성인의 뜻에 어긋난다고 피력하였다. 윤지당의 여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명민한 개인적 자각으로 끝나지 않고 후세 강정일당 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여성성리학자 윤지당이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편견을 뛰어넘어 인간으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주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과정과 그에 대한 성리학의 역할을 1. 여성 교육론, 2. 정치론, 3. 여성 성인론, 4. 저술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여성 교육론

중국의 저명한 학자 강유위(1858-1927)는 유교사회의 남녀 불평등 사례

를 13개 항목으로 설정하여 설명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여성은 학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유교를 주 이념으로 채택한 사회에서 여성에게 교육이 전혀 행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이는 조선시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은 한계가 정해져 있었다. 조선시대의 여성교육은 여성이 가정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선까지만 허용되었다. 여성교육에 대해서는 “부인은 마땅히 서, 사기, 논어, 소학, 여사서를 읽어 그 뜻을 통하고 백가의 성과 조상의 족보와 역대의 나라 이름과 성현을 이름만 통하면 된다”⁷⁾는 것이 당대의 통념이었다.

여성에게 행해진 교육은 여성을 학자로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안의 족보나 읽고 사리를 분별할 정도의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는 선까지만 허용되었다. 이 한계를 넘어선 여성 교육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여겨졌다. 구체적으로 “독서 강의는 장부의 일이다. 부인은 조석과 한서에 따라 가족을 공양하고 제사와 손님을 받들어야 하는 일이 있으니 어느 곁에 책을 대하여 풍송할 수 있으리요. 고금의 역사에 통하고 예의를 논하는 부인들이 반드시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 폐해가 무궁하였음을 많이 볼 수 있다”⁸⁾라고 하였는가 하면 “부인은 규중에 있으면서 음식을 주관하는 자”⁹⁾라고 하여¹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독서 강의는 남성의 일이고 음식을 주관하는 것은 여성의 일이다. ‘안분(安分)’을 강조하는 유교적 차별의식에 의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남성이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안되고 여성이 학문을 연마하는 것도 안된다. 여성에게 주어진 일은 음식을 주관하는 것과 가정내

7) 안병주, 「유교의 이론 보완: 페미니즘 수용과 관련하여」, 한국유교학회 편, 『유교와 페미니즘』(철학과 현실사, 2001), p.22

8) 이덕무, 「사소절」

婦人當略讀書史論語小學女四書 通其義 識百家姓 先世譜系 歷代國號 聖賢名字而已

9) 『성호새설』 권3 상, 인사편 3, 친속 17.

10)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주역전의의 해』 권13, 가인편, p.103

婦人居中而主饋者也

의 잡사를 처리하는 것이다. 만일 여성이 학문을 하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단계를 넘어 끝없는 폐해를 가져올 것이다. 여성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처럼 팽배하였던 시대에 임윤지당은 학문에 종사하였고, 여성에 대한 당시의 이러한 교육관과 배치되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한씨는 비단 식견과 행실이 탁월하였을 뿐 아니라 문예에도 재주가 있었다. 친정부친이 구구한 소리를 믿고 글을 가르치지 않았으나 혼자서 사서 삼경의 경서와 역사책을 배우고 어지간히 그 뜻에 통달하였다.¹¹⁾

'자신의 일을 오로지 할 권리'가 없던 여성 한씨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혼자서' 글을 익혀 경서와 역사에 통달하였다. 유학자들의 보편적 인식에 따르면 한씨의 행위는 부친의 뜻을 어겼다는 점과, 학문을 했다는 것 두 가지만으로도 비난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윤지당은 조선 후기 유학자 윤휴 송능상의 첫 부인이었던 청주 한씨의 전기에서 한씨가 문예적 재주를 갖춘 것과 학문적 식견이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씨의 아버지가 한씨를 교육시키지 않은 행위를 '구구한 소리를 믿고'라고 쓴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성교육에 대한 남성들의 부정적 인식과 이에 대한 논의를 '구구한 소리'로 치부하는 것은 여성도 당연히 배울 권리가 있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 윤지당의 이러한 인식은 여성의 교육을 금기시하는 당대의 일반적 견해와는 배치되는 견해라 아니 할 수 없다. 윤지당이 이러한 견해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여자가 공부를 하는 것은 남성들처럼 하늘이 부여한 천품을 닦고 도를 궁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지시킬 이유가 없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남녀가 비록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하늘이 부여한 성품은 언제나 같은 것입니

11) 『임윤지당』, p.123

韓非特有識行而已 亦有文才 其父親以世俗區區之語爲信而不教書 然往往涉書史 略通大義焉

다. 이 때문에 경전을 공부하다가 그 뜻에 의문이 있으면, 오라버니께서 친절하게 가르쳐주어 제가 완전히 깨우친 다음에야 그만두었습니다.¹²⁾

윤지당은 남녀의 차이는 하는 일에 있는 것이고 천품은 남녀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성이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뜻에서 자신의 오라버니도 자신이 완전히 깨우칠 때까지 자신을 가르쳐 주었다고 여겼다. 성리학적 견해에 따르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고, 또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사람이 학문을 하는 것은 나의 심이 성인의 심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므로 배우는 자는 반드시 먼저 통달한 이의 말에 의지하여 성인의 뜻을 구하고 성인의 뜻에 의지하여 천지의 이에 통달하여야 한다.¹³⁾

선현은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천품이 있지만 태어난 모든 사람이 성인은 아니기 때문에 학문을 통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남성들은 여성의 교육을 금하였다. 여성의 교육을 금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배워 성인의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신 선현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되고, 여성이 사람이라면 조선시대에 여성의 교육을 금한 것은 선현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교육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선현의 뜻에 비춰볼 때 이는 명백히 조선의 제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윤지당이 여성의 교육을

12) 『임윤지당』, p.241

男女雖曰異行 而天命之性 則未嘗不同 故其於經義 有所疑問 則公必諄諄善喻 使之開悟 而後已

13) 『주문공문집』, 권42, 「답석자중」

人之所以爲學者 以吾之心未若聖人之心故也(중략) 故學者必因先達之言以求聖人之意 因聖人之意以達天地之理

금하는 당시의 관행을 비판한 것은 여성도 인간인데 천품을 닦고자 하는 여성의 공부를 금하는 것이 선현의 말씀에 비취볼 때 과연 온당한가라는 비판적 인식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윤지당은 공부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고 구체적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성취하였다.

주희는 학문의 우선 순위를 논할 때 경전을 역사서 앞에 위치시켰다. 또한 학문의 방법을 논할 때에는 반드시 『논어』와 『맹자』를 읽고 그 다음에 경전을 읽어 의리에 통달한 후 역사서를 읽도록 하였다.¹⁴⁾ 윤지당의 학문 역시 사서에서 시작되고 있다.

둘째 형님께서 기록히 여기시고 효경, 열녀전, 소학, 사서 등의 책을 가르치셨는데 누님이 매우 기뻐하셨다.¹⁵⁾

사서에서 시작된 윤지당의 공부는 남성들과 같은 학문적 경지를 이룩하는데 이르렀다. 임윤지당의 동생 임정주는 윤지당의 학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누님의 학문은 유래가 있다. 우리 고조부이신 평안감사 수是堂(임의백)께서는 沙溪 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마음을 스승으로 삼으라는 교훈을 들었다. 선친이신 함흥판관 老隱公(임적)께서는 백부이신 참봉공(임신)과 함께 黃江(권상하) 선생의 문하에 출입하여 정직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둘째 형님 성천부사 鹿門公은 陶庵(이재) 선생의 문하에서 '도는 잠시도 떠날 수 없다는 철학을 전수 받으셨고, 누님은 형님에게서 수학했다. 가문에서 전승된 학문 연원이 유구하고 그 영향이 이와 같이 심원하였다. 그러므로 필경에 성취하신 것이 그와 같

14) 『주문공문집』 권 35, 「답여백공」.

爲學之序 爲己而後可以及人 達理然後可以制事 故程夫子教人 先讀論孟 次及諸經 然後看史 其序不可亂也.

15) 『임윤지당』, p.277

仲氏奇之 遂授孝經烈女傳及小學四子書等書 姉大喜

이 성대하고도 쉬웠다.¹⁶⁾

沙溪-尤菴-遂庵-陶庵으로 내려오면서 전해진 윤지당 가문의 학문적 연원은栗谷에서부터 시작하는 기호 서인의 정통 성리학을 계승한 것이다. 특히 윤지당의 이기심성설, 인심도심사단칠정설, 예악설 등의 성리설은 아래의 예문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율곡학파의 학설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¹⁷⁾

대개 성에는 인의예지신이 있고 정에는 회노애락애오욕이 있으니, 이와 같을 따름으로 오상 밖에 따로 성이 없고 칠정 이외에 다른 정이 없다. 칠정 가운데 인욕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천리에서 나온 것이 바로 사단인 것이다.¹⁸⁾

사단이라는 것은 인의예지의 네 가지이니 성품 가운데서 감응 발동하여 곧장 나온 것을 지칭한다. 칠정이라는 것은 타고난 본성과 형체의 기질이 발동한 것을 합쳐서 총괄적으로 이르는 것일 뿐이다. 칠정 이외에 별도로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다.¹⁹⁾

율곡은 四端과 七情의 관계는 사단이 칠정 이외에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칠정 가운데 포용되는데 칠정 중의 선한 부분이 사단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윤지당 역시 사단이 칠정 밖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16) 『임윤지당』, 「유사」, p.281

孺人學有所自 我高祖平安監司今是堂公諱義伯 受業沙溪金先生之門 得聞師心之訓 先考咸興判官老隱公諱適 與伯氏參奉公諱選 出入黃江權先生之門 得聞直字之教 仲氏成川府使鹿門公諱聖周 蚤遊陶庵李先生之門 得聞道不可離之義 而孺人又受業於仲氏 蓋其家庭之間 淵源之遠 染之深如彼 故其畢竟所成就 又若是盛且易

17) 이영춘, 윗 글, p.64

18) 『율곡전서』, 권14, 잡저1, 「논심성정」

蓋性中有仁義禮智信 情中有喜怒哀樂愛惡欲 如斯而已 五常之外 無他性 七情之外 無他情 七情之中之不雜人欲 粹然出於天理者 是四端也(7쪽)

19) 『윤지당』, 「인심도심사단칠정설」, p.195

四端者 指其仁義禮智四 性中感動直出者而爲言 七情者 合性命與形氣之所發者而摠名之耳 非謂七情之外別有四端

라 하였으니 이는 윤지당과 율곡의 주장이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윤지당은 대학과 중용에 대한 經義까지 집필할 정도로 사서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의리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학문에 대해 스스로 이론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비록 선배학자들의 정론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감히 이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 다만 내 견해를 적어두고 후세 성현들의 판단을 기다린다.²⁰⁾

선배 학자들의 정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성리학의 핵심 이론인 '인심 도심설'에 관해 자기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윤지당의 이러한 기백은 당시 주자학의 권위에 눌려있던 남성학자들에게도 보기 드문 일이었다. 윤지당의 이러한 언설은 자신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에서 기인한다. 윤지당은 어려서부터 옳지 않다고 판단한 행동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기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집안에 과일나무가 많았으나 사당에 올리기 전에는 입에 가까이 하시지 않았다. 모친이 재계하며 채식을 하시는 날에는 비록 먼 조상이라도 육식을 행하지 않으셨다. 어른들이 누님이 어린 것을 생각하여 책망하기를 "너와 같은 어린아이는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모친께서 잡수시지 않는 것을 제게 어떻게 먹겠습니까하고 응대하셨다."²¹⁾

윤지당은 어린아이라 반드시 육식을 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른들이 꾸짖듯이 말하여도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고집스러운 면모를 보인다. 이뿐 아니라 외가에 갔을 때 몇 달을 마루 아래로 내려

20) 『임윤지당』, 〈임심도심사단칠정설〉, p.196

此雖有先賢之論 吾斯之未敢信也 聊識以待知者

21) 『임윤지당』, 〈유사〉, p.278

家多木實 而薦廟之前 未嘗近口 母氏行素之日 雖遠代亦不食肉 長者念其幼 或責之曰 汝小兒 不須爾也 對曰 母氏所不食 女何以下咽

가지 않는다든지, 단정한 용모를 평생 흐트러트린 적이 없다든지 등등 여러 측면에서 유가적 가르침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실천하는 면모를 보였다. 그런데도 여성의 교육에 관한 것만은 당대의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 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학문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서 소외되는 것이 옳지 않으며, 여성을 교육에서 소외시키는 것이 선현의 뜻에도 어긋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윤지당은 자신의 일생 동안 성리학을 연구하고 일정한 성과를 냄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학문적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당대의 여성교육에 대한 관행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정치론

전통유학과 신유학(성리학)의 특징은 外王과 內聖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내성이란 안으로 성인됨, 즉 내면적인 수양을 통하여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말하고, 외왕이란 밖으로는 천하를 다스림, 즉 경세치술을 통하여 정치를 베푸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자들의 학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실현을 염두에 두고 행해지는 것이다.

유가적 입장을 견지했던 남성들이 여성들의 교육에 부정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학식 있는 여성들이 종종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정치적 논의는 그 논의 자체의 시비를 떠나 여성들이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성들에게는 재앙으로 받아들여졌다.

부인은 공사가 없거늘

누에치고 베짜는 것을 쉬도다

22) 성백효 역주, 『시경집전 하』 권18, 대아 첨양(전통문화연구원, 1993), pp.345-346
 婦無公事/休其蠶織//婦人無朝廷之事而舍其蠶織以圖之則豈不爲慝哉

부인은 조정의 일이 없거늘 누에치고 베 짜는 일을 버리고서 조정을 일도 모하니, 그렇다면 어찌 죄악이 되지 않으리오²³⁾

유교적 규범으로 유지되는 사회의 여성에게는 공사가 없고 오직 가정사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부인이 집안 일을 팽개치고 조정 일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남성들에게는 죄악으로 받아들여졌다.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것은 남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행위일 뿐이다.

명철한 지아비는 나라를 이루거늘

명철한 부인은 나라를 전복시키느니라

남자는 밖에서 자리를 바로 하여 국가의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으면 나라를 세울 수 있거니와 부인은 잘못함도 없고 잘함도 없음을 훌륭하게 여겨서 명철함을 일삼을 바가 없으니 명철하면 나라를 전복시킬 뿐이다.²⁴⁾

명민한 남성은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명민한 여성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부인은 잘함도 없고 잘못함도 없음을 훌륭하게 여겨 남에게 경계 받는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고 남의 본보기가 되어서도 안 된다. 성리학의 집대성자 주희는 여성이 명철하여 정치적으로 이러저러한 견해를 피력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하여 강력하게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금하였다. 윤지당의 학문적 연원에 해당하는 기호성리학파의 주장 울곡도 여성의 명민함과 정치적 참여를 극도로 경계하였다.

(여성으로) 오직 총명한 재주와 지혜가 족히 다른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이는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다.²⁵⁾

23) 성백효 역주, 『시경집전 하』 권18, 대아 침양(전통문화연구원, 1993), p.345

哲夫成城/ 哲婦傾城// 言男子正位乎外 爲國家之主 故有知則能立國 婦人以無非無儀爲善 無所事哲 哲則適以覆國而已

24) 『국역울곡전서』5, 〈형내〉, (정신문화연구원, 1994), p.222

惟聰明才智 足以服人者 最可畏也

울곡은 남성의 총명함과 지혜는 복이지만 여성이 총명하고 지혜로워 다른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러한 여성은 정치적 참여를 통해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울곡은 어리석은 여성이 총명한 여성보다 해악이 덜하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총명한 여성을 해악으로 인식하였던 울곡은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막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하였다.

남자는 안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는 바깥일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한다.²⁵⁾

남성의 영역은 밖이고, 여성의 영역은 안이기 때문에 남자는 가내사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말을 하지 않으며 여성은 가정 내의 일 이외의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 국가적 통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크게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도 임윤지당은 <왕안석을 논함>과 <난국을 다스리는 법은 인재를 얻는 것>이란 글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왕도정치와 패도정치가 그것이다.²⁶⁾

밝은 임금과 어진 정승이 함께 만나서 서로 협조하여야 국가가 잘 통치되고 만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내가 여기서 시험삼아 그 대강의 원리를 말해 보겠다.²⁷⁾

25) 『국역 울곡전서』5, <근엄>, (정신문화연구원, 1994), p.239

男不言內 女不言外

26) 『임윤지당』, <왕안석을 논함>, p.159

凡爲天下國家 有二焉 曰王道也 霸道也

27) 『임윤지당』, <난국을 다스리는 법은 인재를 얻는 것>, p.206

明良相得 上下相濟 然後可以共天位治天職 以安天民者 乃自然之理也 吾且試舉其而言之

윤지당은 위의 글 서두에서 자신의 글이 정치적 견해에 관한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글을 시작하였다. 윤지당의 주장은 통치자는 왕도정치를 실행하고 어진 인재를 고루 등용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것으로 이는 유가적 정치관의 원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사구시의 학풍이 유행하고, 왕권강화가 행해졌던 당시를 생각할 때 이는 당대의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함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을 통해 역사고금의 인물을 평하였던 윤지당은 특히 왕안석을 통렬히 비난하였다. 윤지당이 왕안석을 비난한 이유는 그가 인의를 저버린 채 부국강병에만 힘썼기 때문이었다.

왕안석이 평소애 스스로 기약한 바가 어찌 직이나 설보다 못하였겠는가! 그러나 그의 소행을 보면 오패라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추구하였다. 그의 정치는 근본을 소홀히 하고 지엽에만 치중하여 재화의 이득만을 숭상하고 부국강병만을 꾀하였다.(중략) 송나라 국운이 그나마 유지되었던 것은 왕안석이 조정에서 물러나 곧바로 죽었기 때문이다.²⁸⁾

정치가로서 송나라 부흥의 책임을 지고 등용되었던 왕안석은 여러 가지 혁신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왕안석은 자신의 혁신책에 반대하는 구법당의 정치투쟁에서 패배하여 실각되었다. 윤지당은 왕안석이 일찍 죽은 것이 송나라를 위해서는 불행 중 다행한 일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왕안석이 성인의 학문을 공부하고도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한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윤지당은 국가를 다스리는 요체는 부국강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의의 실현에 있다고 보았다.

28) 『임윤지당』, 〈왕안석을 논함〉, p.161

安石之平日所自期者 豈在稷契之下 而迹其所行 反出於五霸之所不爲 外本內末 惟貨利是崇 富強是謀(중략) 宋祚不絕 安石非久去國而死爾

29) 『임윤지당』, 〈왕안석을 논함〉, p.160

利誠亂之樞也 故君子以仁義爲利 不以利爲利

아!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진실로 재난의 핵심이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인과 의를 이득이라 생각하고 세속적인 이득을 이득이라 생각하지 않았다.”³⁰⁾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재난의 핵심이라는 윤지당의 견해는 원론상으로는 잘못 된 것이 없지만 실용과 공리를 추구하는 당시의 실학자들의 정치적 견해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윤지당의 글 〈왕안석을 논함〉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당대 정치를 바라보는 윤지당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정치적 논술이라고 할 수 있다. 윤지당이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정치적 폐해의 다른 하나는 왕권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신하들의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아 옛적에 성군과 현군들이 천하 국가를 다스릴 때는 대성인이 군림하면서도 현명한 신하들을 등용한 연후야 이와 같이 훌륭한 정치가 실현되었다. 후세에는 용렬한 군주와 비루한 사람들이 통치하면서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오직 자기의 편견만 믿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만 좋아한다. 오직 내 말대로만 하고 내 뜻을 어기지 말라고만 한다. 그러니 평화로운 시대가 적고 혼란한 시대가 많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아! 한탄스럽다.”³¹⁾

옛적의 통치자는 자신이 성인이면서도 훌륭한 신하를 과감히 기용하였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후세에는 용렬한 임금이 비루한 신하와 통치하면서 자신의 견해만 고집하기 때문에 혼란이 끝이지 않고 하였다. 이는 윤지당의 큰오빠 임명주가 사간원 정언이 되었을 때 당시의 현안에 대하여 논박하는 글을 올렸다가 귀양간 것과 관련시키면 신하의 말을 용납하지 않는 당시의 정치 풍토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30) 『임윤지당』, 〈난국을 다스리는 법은 인재를 얻는 것〉, pp.207-208

古昔聖帝明王之爲天下國家也 以大聖之君而猶必得賢佐 然後政治如此 後世 則以庸君與鄙夫爲國 而欲其治 難矣 (중략) 偏任己見 好人 己 唯其言而莫予違 宜乎 治日常少而亂日常多矣 可歎也已

윤지당의 이러한 글은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직접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관심사를 가정 밖으로 확대시킨 것이며, 당시 여성의 영역을 집안으로 제한하려던 남성들에 의해 그어진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정치적 발언을 재앙이라고 여기던 당시의 풍토에서 당대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포한 이러한 글을 쓴 것 자체가 하나의 파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여성 성인론

윤지당 역시 조선시대를 살았던 여성으로서,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여 이제야 비로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³¹⁾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큰오빠가 아프다는데도 시댁 일에 매여 오빠를 문병할 수 없었고, 그 오빠가 죽었지만 장례일에도 맞추어 올 수가 없었다. 동기간에 우애를 나누고 걱정하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삶도 여성인 윤지당은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다. 윤지당 자신은 여성들도 학문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남성들은 자신을 '동학'으로 받아들여주질 않았다.

여자의 처지로 함께 강론하고 질정할 사람이 없었다.³²⁾

남성들은 동학들과 함께 모여 공부하며 의문점을 묻고, 토론할 수 있었지만 여성인 윤지당에게는 이러한 동학이 없었다. 따라서 윤지당의 학문을 자신의 남자 형제들과의 교류와 독학으로 이룩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에게

31) 『임윤지당』, 〈큰오라버니께 올린 제문〉, p.236

女子之身 不獲自由 今始來到

32) 『임윤지당』, 〈중용후기〉, p.272

而其餘閨內無講質之益

가해지던 이러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윤지당 자신은 스스로 여성이라고 미리 한계 긋는 삶을 거부하였다.

아 빛난다. 비수여
나를 부인이라 여기지 마라³³⁾

여기서 비수는 마음의 결단력을 말하는데 이러한 비수를 품고 있어야 사욕을 끊고 정심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윤지당은 “나를 부인이라 여기지 말라”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이 남성들과 다름없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갖춘 윤지당은 공부를 통해서 ‘부덕을 갖춘 여성’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곧 유자가 학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성인이 되고자 하였다. 윤지당은 학문의 궁극적 목표점에 도달하는 데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성리학을 공부하는 남성들이 학문을 하는 궁극적 목표는 성인이 되고자 함에 있었다.

어떤 사람(호안정)이 물었다. “성인의 문하에 그 학도가 삼천 명이었지만, 유독 안자만이 학문을 좋아했다고 칭찬받았다. 대체로 詩書 六禮를 삼천 제자가 모두 배워서 통달했다. 그런데도 안자 홀로 학문을 좋아한다고 칭찬받았으니 안자의 학문은 무엇인가?” 이천 선생이 대답했다. “그 학문이란 바로 성인에 도달하는 길이다.”³⁴⁾

성인의 문하에 삼천 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안자만이 호학으로 평가받은 것은 그의 도달점이 성인이 되고자 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성리학자들은

33) 『임윤지당』, 〈비수에 새기는 명문〉, p.225

戟比劍/ 無我婦人

34) 정이천, 『이정문집』 권7, 「안자소호하학론」

或問 聖人之門 其徒三千 獨稱顏子爲好學 夫詩書六禮 三千子非不習而通也 然則顏子所獨好者 何學也 學以至聖人之道也

안자가 학문을 통해서 성인이 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학문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여겼고 자신들이 학문을 하는 목적 역시 성인이 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여겼다. 이들처럼 윤지당의 학문적 목표 역시 성인이 되는 것에 있었다.

요 순 주공 공자 안자 맹자의 성품을 내가 참으로 가지고 있으니 안자가 배운 것을 나만 홀로 배우지 못하겠는가?³⁵⁾

임윤지당은 학문을 시작한 이래로 옛 성인과 같아지는 것을 목표로 일생을 살아왔다. 이러한 학문을 통해서 윤지당은 차별 받는 한 여성에서 자각한 개인으로 거듭났고 여성을 남성과 다르게 한계 짓고 억누르던 시대에 여성과 남성은 다름이 없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내가 비록 부녀자이기는 하나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간에 다름이 없다. 비록 안연이 배운 것을 능히 따라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인을 사모하는 뜻은 매우 간절하다.³⁶⁾

여성을 교화의 대상으로 파악하던 남성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성이 성인이 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윤지당이 이처럼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 대우를 거부한 것이고 여성 역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선언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부족한 존재로 남성에 의해서 교화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유교적 성인은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천품을 닦아 이루어지는 것이며, 일단 성인이 되면 어떤 제제도 받지 않는 존재가

35) 『임윤지당』, 〈극기복례위인설〉, p.203

堯舜周孔顏孟之性 我固有之 則顏子之學 我獨不可學也

36) 『임윤지당』, 〈극기복례위인설〉, p.205

噫我雖婦人 而所受之性 則初無男女之殊 縱不能學顏淵之所學 而其慕聖之志則切

된다. 따라서 윤지당이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체임을 밝힌 것이다. 여성은 스스로의 완전한 능력으로 좋은 어머니도 되고, 부인도 되는 것이지 오로지 할 뜻을 가지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남성을 쫓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 존재에 대한 이런 자긍심은 현대에도 보기 드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저술유세

조선시대의 여성은 글을 깨우치기도 어려웠지만 자신의 저서를 갖기는 더더욱 어려웠다. 이는 여성의 글이 밖으로 전파되는 것을 매우 꺼려한 사회적 통념에 기인하는 것이다.

부인은 마땅히 서, 사기, 논어, 소학, 여사서를 읽어 그 뜻을 통하고 백가의 성과 조상의 족보와 역대의 나라 이름과 성현을 이름만 통하면 된다. 헛되이 풍월과 가사를 지어 밖에 전파해서는 안 된다.³⁷⁾

따라서 지금까지 남아 전하는 여성의 글 중에 문집으로 된 것은 그 수가 매우 적다. 이는 글을 아는 여성들이 간혹 창작을 하더라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안동장씨는 자신이 시문을 창작한 것을 어렸을 적 객기로 치부하고 자각이 든 이후로는 글을 짓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허난설헌과 남정일헌 등 많은 수의 여성작가들은 죽기 전에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태워 세상에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금 전하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저서는 남편이나 자식들이 부인이나 어머니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문집을 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윤지당은 자

37) 이덕무, 「사소절」

婦人當略讀書史論語小學女四書 通其義 識百家姓 先世譜系 歷代國號 聖賢名字而已 不可浪作詩詞 傳播外間

신의 글을 세상에 남기려는 의식을 가지고 저술활동을 하였다. 여성들에게 교육을 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던 윤지당은 다른 여성작가들이 글을 아는 것을 숨기고 규방 안에서 홀로 시문을 짓다가 민멸시켜버린 것과는 달리 자신의 저작이 자신의 사후 방치되다가 세상에 간행되지도 못하고 사라질 것을 염려하였다.

이제 노년에 이르러 나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득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으면 아마도 초목과 같이 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집안 일을 하는 틈틈이 여가가 날 때마다 글로 써 두었다.³⁸⁾

따라서 평상시 문집간행을 목적으로 자신의 글을 정서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러나 옛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다. 먼저 것을 버리고 이것을 넣는 것이 어떠하겠는가?³⁹⁾

비록 식견이 천박하고 문장이 영성하여 후세에 남길 만한 투철한 말이나 오묘한 해석은 없지만 내가 죽은 후에 장독이나 덮는 종이가 된다면 또한 비감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정서하여 양자 재준에게 넘겨주었다.⁴⁰⁾

자신의 글이 그대로 없어진다면 비감한 일이 될 거라는 언설은 동시대의 다른 여성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발언이다. 또한 윤지당 자신이 남길 글을

38) 『임윤지당』, 〈문집초고를 베껴 지계로 보내며〉, p.249

逮至暮年 死亡無幾 恐一朝 然 草木同腐 遂於家政之暇 隨隙下筆 遽然成一大軸

39) 『임윤지당』, 〈중용후기 별지〉, p.273

然猶勝於舊 刪彼存此 如何

40) 『임윤지당』, p.249

雖其識根淺陋 筆力短卒 無透語妙解可以遺後 然於身沒之後 仍成覆 之紙 則亦足可悲 故書諸一冊子 以授子在坡

스스로 고르고, 이미 완성된 글을 수정하는 것은 사후 자신의 문집 간행을 염두에 둔 행위이다. 아마도 윤지당은 자신의 저서를 세상에 간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저술활동을 한 흔치 않은 여성작가인 듯하다. 윤지당은 당대에는 남성들에게 자신이 동학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글과 생각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었기에 자신의 글을 살아 생전 손수 정리하고자 한 듯하다.

이제 칠순의 나이가 다가와 심신이 쇠약하고 병이 많아지니, 스스로 남은 세월이 얼마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병오년 겨울에 일찍이 어거지로 생각하던 뜻을 대략 저술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자의 처지로 함께 강론하고 질정한 사람이 없었다. ... 그래도 이 작업을 한 것은 평소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고자 한 때문이다. 또한 지혜로운 분의 질정을 기다리고자 함이다.”

윤지당에게 글은 어머니, 아내, 딸이 아닌 윤지당 자신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라고 여겨졌다. 윤지당은 자신의 사후라도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의도대로 세상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했기에 자신의 글을 정리해 둔 것이다. 이러한 윤지당의 바람대로 윤지당보다 50년 후에 태어난 강정일당은 윤지당의 말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여성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선언했다.

윤지당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비록 부인이지만, 하늘에서 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가 차이가 없다”라고 하셨고, 또 부인으로 태어나 태임과 태사와 같은 성녀가 되기를 스스로 기약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자포자기한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인들이라도 큰 실천과 업적이 있으면 가히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41) 『임윤지당』, pp.272-273

여성도 남성과 다름없는 천품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과 동등한 학문적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윤지당의 자각과 자부심은 자신의 저작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윤지당이 조선시대에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부당함을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아도 이러한 그녀의 존재 자체가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이 된다. 현명한 신하를 내버려두는 것이 곧 임금의 허물인 것처럼 남성과 다름없는 천품을 가지고 그들과 동등한 학문 수준을 이룩한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적영역의 진입이 막히고 규문 안에서 탄식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이는 사회의 제도가 부당한 것이지 여성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윤지당 논리의 정당성은 성리학에 철저히할수록 더욱 인정받을 수 있었다. 결국 윤지당이 조선시대의 금기 밖에서 학문을 계속하고 저술을 남길 수 있으려면 그의 학문이 성리학적인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되었을 것이다. 윤지당은 역설적이게도 성리학의 철저한 실천을 통해서 성리학을 기반으로 성립된 조선시대에 여성에게 가해졌던 억압과 차별의 부당함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불평등은 크게 여성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공적 영역에의 진입을 거부한 것에서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없었고, 사회적 인간으로 남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었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교화의 대상이었고, 남성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였을 뿐이다. 유순하고 순종적인 여성상이 규범적 여성상으로 정립되어 확대 재생산되던

42) 이영춘, 『강정일당』(가람기획, 2002), p.90

允摯堂曰 我雖婦人 而所受之性 初無男女之殊 又曰 婦人而不以任 自期者 皆自棄也 然則雖婦人而能有爲 則亦可至於聖人

시대에 윤지당은 자신이 평생 탐구했던 성리학적 논리를 빌려 여성도 남성과 다름없는 천품을 타고난 존재임을 선언하였다. 윤지당은 성리학의 논리를 가지고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였다고, 정치적 영역까지 관심사를 넓혔다. 남성을 돕고 보완하는 여성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던 시대에 여성도 남성처럼 학문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여성이 자신의 삶의 주체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스스로의 생각을 후세에까지 전승하여 주체적 삶에 대한 여성의 자각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재생산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페미니즘적 관점과 여성의 주체적 자각 및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긍심은 근대적 학문의 결과만은 아니다. 모든 억압받는 것들은 자기 성찰을 통하여 그 부당함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또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조선시대의 여성을 가부장제적 삶의 질곡에서 신음하다가 죽어간 피해자로만 인식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문제 해결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편견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주체적 자각의 과정이 반드시 탈유교화의 수순을 밟는 것도 아니다. 여성성리학자 임윤지당의 선언은 유교와 페미니즘의 관계 재정립에 여러모로 시사하는 점이 많다.

■ 필자 : 강남대 겸임교수

참고문헌

울곡전서

시경

주역

이영춘, 임윤지당, 혜안, 1998.

이영춘, 강정일당, 가람기획, 2002.

한국유교학회 편, 유교와 페미니즘, 철학과 현실사, 2001.

민병수, 조선전기의 문학과, 국어국문학회 편, 한문학연구, 정음문화사, 1986.

정하영 외 6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이능화 저, 김상익 역, 조선여속고, 동문선, 1990.

이숙희, 조선조여성한문학사, 김상홍 외 2인 편, 한국문학사상사, 계명문화사, 1991.

이동환, 안동장씨부인의 시정신,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창간호, 월인, 2000.

김미란, 조선후기 여류문학의 실학적 특징, 동방학지 84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4.

이숙희, 윤지당의 논문 연구, 조종업교수회갑기념논문집, 동방고전문학연구회, 1990.

박 석, 이학가 문학관의 내성적 경향, 중국문학연구회 편, 중국시와 시론, 현암사, 1993.

후외려 외, 송명이학사, 박완식 역, 이론과 실천, 1993.

진래, 송명이학사, 안재호 역, 예문서원, 1997.

이석래, 이조의 여인상, 을유문화사, 1984

벨 훅스 지음, 박정애 역, 행복한 페미니즘, 백년글사랑, 2002.

Abstract**A Study of Yim, Yoon Ji Dang**

Park, Hyun-Sook

The paterfamilias society based on the Confucianism deprived women of the opportunity of education and obtaining political positions. The fact caused social in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Therefore, women could not only independently plan their life by their own decisions, but also they could not live along well with men in the same society. To men, women were merely subjects to be enlightened by men, and women were only passive human beings who should be extraordinarily submissive to men all the time. Buttressed by the philosophy of human nature and human laws that was studied by Yim throughout her whole life when the images of submissive and obedient women were the epitome of all women, Yim strongly asserted that women should be treated and educated equally. Yim mainly insisted that women should be able to receive equal education to men and also broadened her study fields to a political sphere by claiming the philosophy of human nature and human laws. One more claim that Yim declared was that women themselves were able to establish their independent subjecthood and could be a sage through studying and researching hard on specific subjects they were interested in, even though the society extorted women from living only as helpful people for men's lives. By her

books Yim tried to transmit her scholastic philosoph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to reproduce the continuous self-consciousness about the subjective lives of women. This fact should be evaluated considerably meaningfully.

key word : Yim, Yoon Ji Dang, female, women, adults, education, politics, the philosophy of human nature and human laws, writing, literary work, pursuits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1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